

Butadiene, 드디어 600달러선 돌파

FOB Korea 605-610달러 형성 ... SBR·ABS 가동률 조정 불가피

Butadiene 가격이 6월28일 FOB Korea 기준 톤당 605-610달러로 22.5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부타디엔 시장은 공급이 타이트해 Spot 공급물량이 드문 실정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7월 거래가격이 FOB 600달러를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타이완에서도 7월 하순 거래물량 800톤이 CFR Taiwan 기준 톤당 600달러에 거래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바이어들이 7월 거래가격으로 FOB Korea 605달러를 제시했으나 거절했고, 최소한 605-610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BR, SBR, ABS 생산기업들은 가동률을 50-70%까지 낮춰 부타디엔 공급부족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상들은 중국행 공급물량을 타이완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이완의 최종 수요자들이 CFR 620달러 이상을 지불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FOB China 590-600달러, CFR Taiwan 640-650달러에 해당하는 가격 수준이다.

아시아의 부타디엔 가격은 CFR Taiwan 및 CFR SE Asia가 톤당 620-640달러를 나타냈고, FOB Japan은 605-610달러로 FOB Korea와 같았다.

미국의 부타디엔 Spot 가격은 CIF US Gulf 기준 파운드당 25.75-26.25센트로 톤당 평균 573달러, 6월 계약 가격은 파운드당 22.00센트로 톤당 485달러 수준을 형성했다.

미국가격은 6월14일 약간 하락한 후 3주째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나, 7월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23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며, 일부에서는 2센트 인상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C4 공급부족으로 3개 부타디엔 추출기업들의 가동률이 70-80%에 머무르고 있는데, 3개 중 한곳은 7월 중순까지도 가동률이 80%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7/ 03 >